



“난산리 요망진 서당터서 이색체험을”

마을협동조합, 휴게음식점·야간장터 개장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마을협동조합(이사장 오권옥)이 ‘난산리 요망진 서당터’ 사업을 시작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달 25일부터 시작한 난산리 요망진 서당터 사업은 과거 마을 서쪽에 마을신을 모셨던 당(堂)이 있었다고 해 ‘서당골(서당골)’로도 불리던 지명을 활용, 6차산업 활성화를 통한 관광상품으로 연결시켜 지역소득 증대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모색하는 사업이다.

마을을 찾는 방문객을 위해 휴게음식점이 매일 운영되고, 야간장터는 9월 11·18일, 10월 2·16·30일 오

후 5~10시에 각종 상품 판매에서부터 공방체험, 플리마켓, 중고장터, 바비큐파티, 버스킹 공연 등 먹거리·볼거리·즐길거리가 제공된다.

오권옥 난산리마을협동조합 이사장은 “난산리 요망진 서당터는 지역의 6차산업과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마을을 발전시켜 보자는 취지의 사업인만큼 대주민 홍보는 물론 다양한 관광상품과 프로그램 유치도 시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당터는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로 41번길 39-7에 있다. 문의 난산리사무소 782-3885.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청년회원 간 단합·소통”

서귀포시연청년회 한마음대회

서귀포시연합청년회(회장 홍용수)는 2일 오전 성산국민체육센터에서 마을청년회원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귀포시연합청년회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연합청년회 한마음대회는 성산에서부터 대정까지 17개 읍·면·동 연합청년회 회원이 참여하는 격년제 행사로 올해 6번째로 열렸다.

이날 체육대회는 읍면동 대항 5종의 체육경기인 한마음줄넘기·투호·줄다

기·럭비공승부차기·여자팔씨름대회 등이 진행돼 각 읍면동 청년회원간 단합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각 읍면동 대표들이 선의의 경쟁을 벌인 결과 한마음줄넘기에서는 송산동이, 투호 서홍동, 줄다리기 안덕면, 럭비공승부차기 안덕면, 여자팔씨름대회도 안덕면이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행사에 참석한 양운경 서귀포시장은 축사를 통해 “이날 행사가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청년들이 함께 모여 소통하고 희망을 이야기하는 화합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청년의 힘이 ‘행복도시 서귀포시’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조흥준기자

“마을간 화합위해 첫 개최”

송산동종합체육대회 열려

송산동체육회(회장 정태권, 상임부회장 현두철)는 지난 1일 보목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송산동민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송산동종합체육대회를 열었다.

올해 처음 열린 송산동체육대회는 송산서귀마을과 보목마을이 하나가 돼 어울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양 마을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체육대회에서는 마을과 통, 반 구분

없이 무작위로 팀을 구성해 가족과 어르신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

행사에는 양운경 서귀포시장, 강충룡 도의원 및 오대익 교육의원을 비롯해 송산동의 주요 기관·단체장들이 참석해 체육대회 관계자 및 대회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정태권 체육회장은 대회사에서 “제1회 송산동종합체육대회가 주민 소통과 지역 화합을 이루는 밑거름이 돼 지역발전을 위한 동민의 의지와 역량을 한데 모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흥준기자

원담이 詩로 피어나는 문화마을 금능리

지역자산 활용한 금능원담축제 올해로 10년째
1970년대 마을 청년 구성 ‘햇불클럽’도 유지
‘꿈차롱도서관’ 마을주민 문화복지 역할 톡톡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이장 김성수)는 제주시 중심지에서 서쪽 일주도로를 따라 35km 지점의 해안가에 위치한 아담한 마을이다. ‘금능 으뜸원 해변(금능해수욕장)’이 있으며 한림공원, 협재해수욕장, 비양도 등 유명 관광지와 인접해 있다.

금능리는 다른 지역과 달리 마을의 공동체문화가 단절되거나 소멸된 적이 없다고 자부한다. 화합을 가치로 세대별로 전통문화를 지키고 계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을제도 이어져 마을과 마을주민의 무사안녕을 기원하고 있다. 1950년대 시작된 ‘금능리민 단합체육대회’도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1972년에 마을청년들이 ‘햇불클럽’을 결성하고 마을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인성교육과 학과공부, 생활문화를 가르침으로써 본격적인 마을 문화발전을

위한 토대를 쌓아 놓은 문화적 전통도 갖고 있다.

금능해수욕장은 해수욕장과 연결된 원담을 활용한 ‘금능원담축제’를 지난 2008년을 시작으로 해 올해 10회째로 개최하고 있다.

제주지역 전통어로활동 자산인 원담의 훼손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원주민이 스스로 독창적인 문화 콘텐츠를 개발해 방문객에게 문화체험의 장을 선사함으로써 축제 이전에는 해수욕장 이용객이 연간 4만여명이었지만 축제 이후에는 25만명이 지역을 찾고 있다.

금능원담축제가 마을의 외형적 문화발전을 주도했다면 2009년 12월에 개관한 ‘꿈차롱작은도서관’에서는 마을의 내적 문화발전과 주민들의 문화복지 발전을 주도하면서 지금은 원담축제와 함께 호흡을 맞추며 마을의 종합



지난 2009년 12월에 개관한 ‘꿈차롱작은도서관’에서는 주민들의 문화복지를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사진=제주시 제공

적인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다. 문화 혜택의 소외를 벗어나기 위한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문화예술 체험의 장을 마련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면서 지금은 마을문화 발전의 요람이 되어, 현재는 마을주민과 예술가, 방문객들의 소통, 문화 활동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김성수 이장은 “앞으로도 주민 모두가 문화적 마인드로 문화복지로 일구어가는 문화 행복마을 완성을 목표로 마을을 지키고 가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숙기자 hslee@ihalla.com

삼도1동 청소년 놀이문화공간 청소년문화의집 올해말 문연다

사업비 10억원 투입해 옛 주민센터 리모델링

제주시는 총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해 옛 삼도1동 행정복지센터 2·3층을 청소년문화의집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오는 12월에 준공예정인 삼도1동 청소년 문화의집은 총사업비 10억원 중 70%를 국비로 지원받아 이뤄지고 있다.

이번 리모델링 공사는 597.36㎡ 공간에 동아리방, 밴드·댄스·노래연습실, 북카페, 자치활동실, 정보검색실 등 청소년 전용공간이 조성된다.

제주시는 이번 공사를 위해 지난 4월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6월 청소년 및 청소년전문가, 건축전문가 등으로 공공수련시설 건립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공간 구성 및 시설 배치계획을 확정했다.

현재 제주시 지역 26개 읍면동에는 현재 10개의 청소년문화의집이 설치되어 있다. 향후 삼도1동에 문을 열면 11개(42.3%)로 전국 평균 7.1%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제주시가 옛 삼도1동 행정복지센터 2·3층을 청소년문화의집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오는 12월 준공 목표로 시행하고 있다. 사진은 조감도.
사진=제주시 제공

제주시 관계자는 “삼도1동 청소년들의 놀이문화공간이 될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향후

미설치 읍면동에 대해서도 수요조사를 통해 해마다 1곳씩 건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숙기자

“이웃이 이웃 돌보는 좋은 동네 만들어요”

안덕면 좋은이웃들 사업
이웃사촌 방문의 날 운영

안덕면행정복지센터(면장 이상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대인)는 지난날 29일 ‘8월 이웃사촌 방문의 날’ 행사를 추진했다.

안덕면 ‘우리동네 좋은이웃들’ 나눔 실천사업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발굴해 1대1 결연을 하고 정기적으로 방문함으로써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서지원 및 모니터 활동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속적인 후원을 하는 사업이다.

안덕면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과 마을 이장, 공무원 등 돌봄 이웃 48명과 좋은 이웃 36명이 결연을 맺고 있다. 특히 우리동네 좋은이웃들 사업은 지난 7월부터 정기적으로 방문활동을 시작, 지난 행사 때에는 폭염과 태풍 건강 문제 등으로 어렵거나 힘든 일이 없는지 안부를 물으며 이웃 간의 정을 나눴다.

또 돌봄 이웃 중에는 농부, 이·미용업, 택시사업 종사자, 주부 등 다양한 직업 군의 사람들이 구성돼 있어 각 결

연을 맺은 가정을 방문 시 이·미용봉사, 청소 지원, 밀반찬 나눔, 예초 작업 등 봉사자 각자의 재능을 살린 봉사활동을 선택해 활용함으로써 재능기부는 물론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좋은 동네’를 만들어 가는 데 일조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도 돌봄이웃들이 1:1로 결연을 맺은 자택을 각각 방문해 상담을 통한 정서지원과 함께 클레트 및 클타월을 전달했다.

조흥준기자 chj@ihalla.com

대한민국 대표방수제

친환경 칠만표방수제

누구나 칠만하면 장기간 100% 방수

KCC 페인트

제주대리점 컴퓨터 자동차시스템(조색기) 구비

뉴 신상품 초속경보수몰탈

특징 접착강도가 가장 빠른 몰탈 (5mm이상)

용도 건축물보수/보강(특히 옥상물 고이는 곳) 콘크리트 페인트로 보수공사용 기타 높은 강도 및 접착강도가 요구되는 공사

강력접착방수제

특징 통기성(공기는 통해도 물은 들어가지 않는)이 있어 들뜨지 않습니다.

용도 모든 콘크리트 건축물 알칼리(옥상, 외벽)

※ 소비자가 인정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수제 (주식공사 · 건립동 현대아파트 · 외도 일우아파트 외)

한번 칠하면 오래 가는 칠만표 수용성 외벽 방수 페인트

칠만하면 100% 방수와 페인트칠을 한번에 (시간절약, 비용절약)

특징 들뜸이 없고 부식이 안돼 장기간 미관유지 단열효과로 집안이 쾌적하다

용도 드라이비트 및 콘크리트외벽 (주택, 아파트 빌라, 펜션, 호텔, 상가 등) 타일면 벽돌면 스톤면

※ 세찬 비바람과 비가 자주오는 제주 주택에, 특히 드라이비트 외벽에 참 좋습니다.

싱글지붕용 탄성도막 방수제

부식이 되어있는 싱글지붕을 칠만하면 방수되고 탄탄한 새지붕으로 바뀝니다.

노형 위더스빌라 12차 세일자동차 외

★ 주요생산물 : 녹/회색 접착방수제, 황토방수제, 균열보수제, 모체강화제, 수용성침투성방수제(발수제), 타일줄눈방수제, 결로방수제, 고농축원결방수제, 급결지수제, 우레탄류

방수 백화점 금강종합건설 KCC 페인트 · 칠만표방수제 · (주)대화정밀 · 현대공구 제주대리점 T. 752-8209, 758-8209, F. 753-8209 ※모방품주의바랍니다.